

Chapter 2 of the Book of Daniel brings a striking transformation in Daniel's standing in Babylon. It begins with a young man in his late teens, fresh out of college, just starting his career in the public service in Babylon, and it ends with a man who is at the centre of the royal court, who has gained the ear of King Nebuchadnezzar and has unique influence in Babylon. Verse 48 tells us that the king made Daniel "ruler over the entire province of Babylon and placed him in charge of all its wise men". How did all this come about?

다니엘 2 장은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신분과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십대 후반의 청년으로 출발하여,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막 바벨론에서 공익 서비스를 직업으로 시작하였다가, 왕실 법정 중심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를 사고 바벨론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한 남자로 끝을 맺습니다. 48 절은 그 왕이 다니엘을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것이 가능했을까요?

Well, to cut a long story short, Nebuchadnezzar dreams a dream, and immediately, as is the case with many dreams, he forgets the details of it but the uneasiness remains. It leaves him with a hidden dread. He calls for the pundits of his day – the astrologers, the wise men, his counsellors – to interpret his dream for him. Of course, it is an impossible job. Since they do not even know what the dream was, they've got no hope of interpreting it for him. He threatens to cut off their heads if they do not solve the mystery (not only their heads, but indeed the heads of all the wise men of Babylon, including Daniel and his 3 friends,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글쎄요, 그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고, 다른 많은 꿈들의 경우처럼 그는 즉시 그 꿈의 세세한 것은 잊고, 그 안에 찡찡한 뭔가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알수 없는 두려움을 그에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를 위해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자, 그시대의 대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술사, 박사들, 상담가들.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꿈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 왕을 위해 꿈을 해석할 희망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만약 그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그들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명의 친구들: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머리를 말했지요)

I want us to concentrate this morning on Daniel's interpretation of King Nebuchadnezzar's dream. It is a dream that is very significant for a number of reasons. It is significant politically – it describes the world in which we live, just as it described the world in which Daniel lived. It is significant prophetically – it gives us a theology of hope for the future. It is significant pastorally – it answers the deepest fears and anxieties of men and women, boys and girls, especially today. And it is significant personally – it challenges us as to where we stand in relation to God's kingdom.

저는 우리가 오늘 아침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의미심장했고 -그것은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으로 의미심장합니다 -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의 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목회적으로 중요합니다 - 그것은 특히 오늘날, 남녀 아이들, 성인 남녀가 지니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공포와 근심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 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First, politically – This dream is a divinely-prompted nightmare. God speaks through this dream and presents Daniel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influence things in Babylon. Verse 19 tells us, "During the night the mystery was revealed to Daniel in a vision". He was given an answer to prayer – he and his 3 friends had prayed that God would reveal the mystery of Nebuchadnezzar's dream. Prayer must always be the thing that undergirds our ministry for the Lord – both corporately in our church work and individually in our lives. Our ministry must begin with prayer and continue in it. And our God is a God who delights in answering the prayers of his people, as we see here.

우선 정치적으로 - 그 꿈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린 악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말씀하셨고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 뭔가에 영향을 줄 독특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9 절에서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라고 합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 그와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신비가 드러나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을 확실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 서로 협력하는 교회 일이건 각자의 인생에 관한 개인적인 것이건. 우리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여야 하고 기도와 함께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그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What Nebuchadnezzar saw in his dream was a huge statue with head of gold, chest and arms of silver, belly and thighs of bronze, legs of iron and feet of a mixture of iron and clay. Politically, Daniel identifies this statue and its components as 4 kingdoms, 4 great world powers. Daniel, by God's inspiration, is accurately foretelling the future hundreds of years before it actually happened. 600 years beforehand, Daniel clearly sees the coming of Christ and he spells it out for us here politically in terms of these great world powers, doesn't he? "The head of gold, that is you, Nebuchadnezzar", he says in vv. 37-38. "You are the present power on the world stage but your empire will have to give way to another kingdom. Your empire won't last forever – it will give way to a kingdom of silver." The Medo-Persian empire will then take the centre stage. But that, in turn, will give way to yet another empire – the empire of bronze, Alexander the Great's mighty empire. But even his great Graecian empire will give way to another empire, an empire of iron mixed with clay – the great Roman empire. In its feet, in its toes, that great empire, that will smash all other empires like a rod of iron, will have in its growth the seeds of its own collapse and demise. And during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Roman Empire, God will do something amazing. A stone will come, not cut by human hands, and it will fly through the air and smash this huge statue, this towering colossus. "And then, that stone will grow", says Daniel, "into a huge mountain that will fill the whole earth" (v. 35).

느부갓네살이 그의 꿈속에서 본 것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 청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 철로 된 다리와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을 가진 거대한 동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니엘은 이 동상과 그 구성요소들을 네개의 나라와 네개의 세상의 위대한 권력으로 정의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다니엘은 실제로 일어나기 수백년전의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수 있었습니다. 600 년을 앞서,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실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이 위대한 세상적 권력에 집중하여 판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금머리는 곧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라고 37-38 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있는 현재의 권력이지만 당신의 통치권은 다른 나라에게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제국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것은 은의 왕국에게 내어주게 될것입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왕조는 그다음 중앙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왕조- 청동의 제국, 알렉산더 대 제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그리스 왕조도 또다른 왕조-철과 진흙이 혼합된 왕조인 대 로마제국에게 넘어갑니다. 그 동상의 발과 발가락으로 그 대제국은 쇠의 지팡이처럼 모든 다른 제국들을 강타할 것이고, 그 스스로의 붕괴와 소멸의 씨앗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의 부흥과 추락의 시간 동안 뭔가 놀라운 것을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진 것이 아닌 돌맹이 하나가 와서, 그것이 공중으로 날아가 그 거대한 동상, 높이 솟아 있는 거상을 부숴뜨릴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다이다."(35 절) 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In the fullness of time that is, of course, exactly what happened: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writes the apostle Paul,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law, to redeem those under law" (Galatians 4: 4-5). When Palestine was overrun by the mighty Roman empire, the Son of God came from nowhere – born of the virgin Mary, he came into Galilee preaching the good news: "The kingdom of God is near" (Mark 1: 15). And this will be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a kingdom that is going to fill the future, a kingdom that will endure and last forever. God's kingdom has now come. And by grac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can be part of that kingdom, children of God and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And let us be encouraged and emboldened by Jesus' promise that even "the gates of Hades (Hell) will not overcome it" (Matthew 16:18). Though at times the progress may seem slow and minimal and Satan may seem to be thwarting our every effort, we are assured that the Church of Jesus Christ will triumph. We are on the winning side!

그 온전한 때가 오면, 물론 정확히 일어날 일이란 : "때가 차매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것" (갈라디아서 4:4-5) 이라고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로마제국에 의해 넘어졌을때,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라 –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복음을 전하고자 갈릴리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가복음 1:15). 그러므로 이는 흔들릴수 없는 나라이고, 미래를 채워갈 나라이자 영원히 견디고 지속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그 나라의 일부분이 될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마태복음 16:18)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담대해 집시다. 때때로 그 진보가

더디고 미세한 것 같고, 또는 사단이 우리의 모든 노력을 훼방놓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있는 것입니다.

Next, let us turn to the dream's interpretation prophetically. What we have here is a prophecy – a prophecy that is continually being fulfilled. And it is something that we are called to proclaim in our day and age. It is the story of David and Goliath all over again, isn't it? You can almost picture it, can't you? A stone flying through the air and pulverizing Goliath, that arrogant Philistine who stood up and defied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that giant man who dared to stand in the way of God's kingdom. That is the story of human history right from the very beginning, that's the ongoing pattern of history. Here in Daniel chapter 2 we have proud Nebuchadnezzar – it's his day now, it's his time. Here he is,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 even Daniel refers to him as "the king of kings" in v. 37. And here he is, just like Goliath – he is furious and angry because of what he has been told by his advisers. Look at vv. 11-12. The astrologers answer the king, "What the king asks is too difficult. No one can reveal it (that is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to the king except the gods, and they do not live among men". We are told that "this made the king so angry and furious that he ordered the execution of all the wise men of Babylon".

다음으로 그 꿈의 해석을 예언적인 방향으로 돌려봅시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언 –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시대와 삶을 통하여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원가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여기 나온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거의 그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하여 거부하고 맞서는 교만한 팔레스타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감히 가로막고 있는 거인인 그 골리앗을 부숴뜨리기 위해 공중으로 날아온 하나의 돌. 이것이 바로 맨 처음부터 있었던 인류의 역사이고 계속되고 있는 역사의 패턴입니다. 다니엘 2 장에서 우리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봅니다 – 그때는 그의 시대였고, 그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 – 다니엘은 37 절에서 그를 "왕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 골리앗과 같은 그가 있습니다 – 그의 고문들이 그에게 말했던 것 때문에 그는 분노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11-12 절을 보십시오. 갈대아 술사는 왕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꿈이든 그 해석이든)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더라."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What was it that made Nebuchadnezzar so angry and furious? It was the fact that he was reminded by his wise men, his advisers, that he was only a human being like everybody else. Proud, arrogant Nebuchadnezzar thought he was god. And the same story has been repeated throughout history right from the very beginning. Men have believed the Devil's lie, "You will be like God" (Genesis 3: 5). Again and again, these men have come and stood on the centre of the world's stage. Adolf Hitler thought he was god, didn't he? He thought he was going to establish a kingdom that would last for 1,000 years – the third Reich. It lasted for just 12 years! We have had the Kim family in North Korea – grandfather, father, son – acting in that brazen, arrogant way. God has pulled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e lowly – that is what God does. The glory that was Rome, the awesome pyramids in Egypt, the Communist bloc of the 20<sup>th</sup> century – all these great kingdoms, these human empires, where are they now? God has brought them down. It is only what God does that lasts forever! We are called as the church, the people of God, to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has delivered us out of the kingdom of darkness and brought us into his wonderful kingdom of light – to proclaim to men and women, boys and girls, the eternal life to be found only in Jesus Christ, which is by grace through faith. God calls us to labour for the only kingdom that will truly endure – the kingdom on his Son, Jesus Christ – and in doing so to store up for 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treasures that will last, that will never perish, spoil or fade.

무엇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토록 화나고 분노하게 하였나요? 그것은 그의 박사들, 고문들로부터 그도 다른 사람과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에게 각인시킨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그가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맨 처음부터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5).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들은 세상의 무대의 중심에 와서 섰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지 않습니까? 그는 그가 천년을 견딜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 나치의 제 3 제국. 그럴지만 그것은 12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씨 세습가를 알고 있습니다 –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 파렴치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끌어 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가 가졌던 영광, 이집트의 훌륭한 피라미드, 20 세기의 공산주의 연합 – 이 모든 위대한

나라들, 인간의 제국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 내렸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 밖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빛의 위대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도록 -민음을 통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오직 찾을 수 있는 영생의 삶을 남녀, 아이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존속될 유일한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 행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보물-영원히 썩지고 시들지도 소멸하지도 않을 그 보물을 쌓도록 말입니다.

This brings us to what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way of looking at this dream – namely, pastorally. This dream of Nebuchadnezzar’s and Daniel’s interpretation of it have enormous relevance for us today. Woody Allen, the American film director and actor has said,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That’s true, isn’t it? Certainly most people who are 50 or more years old would have had much greater hopes for the future than they have now.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As we move into the 21<sup>st</sup> century global insecurity is increasing, isn’t it? There is the conflict in the Ukraine causing global tensions as are the insurgencies of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And terrorism strikes fear into people’s hearts and has come to our doorstep with The Lindt café siege in Sydney. Environmental uncertainty is increasing. Will the greenhouse effect melt the polar icecaps and drown us all? Will the hole in the ozone layer expand and incinerate us all? Will the changing weather patterns mean more long and sustained droughts? What about the increasing rate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and stress related illnesses in our society? What about the increasing rate of violence and abuse in our society? It has been said of our times that “no age has shown more interest in the future than our age which is ironic since we may not have a future.” Whether you read a book or newspaper or blog or watch a film or the television or get into a conversation with people, either on social media or face to face, you find that so many people have within their hearts this hidden dread of the future and what the future holds. The future seems to be coming at us at such an alarming rate, doesn’t it? People are very uneasy about it. All the technological advances that have been made, and continue to be made, have set the world on this roller-coaster ride headlong into the future. This is the world we live in, a frightening world in many respects – it’s a world that fills people with fear and anxiety.

이는 이 꿈을 바라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이름하여 목회적으로-우리를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은 오늘날의 우리와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우디 알렌은 “미래는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죠? 틀림없이 50 세가 넘은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갖게 된 것보다 미래에 대한 훨씬 더 거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미래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21 세기로 접어들면서 지구의 불안정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적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립이나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세력의 폭동도 그렇습니다. 테러는 사람들의 가슴에 공포를 몰고 왔고, 시드니의 린트 카페의 포로 소동은 그것이 우리의 문앞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적 불안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효과는 북극의 빙산을 녹이고 우리를 물에 잠기게 할까요? 오존층의 구멍은 커져서 우리를 태우게 될까요? 변화하는 날씨 패턴은 더욱 오래 지속되는 가뭄을 유발할까요? 정신병이나 우울증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폭력과 학대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어떤 시대도 이토록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은 시대는 없었다”고 우리 시대에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이나 신문을 읽든, 블로그나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든, 사대중 매체나 면전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미래와 미래가 쥐고 있는 것에 대한 알수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꺼림직해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리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첨단 테크놀러지 기계는 세상을 미래를 향해 거꾸로 세운 롤러코스트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여러 관점에서 공포스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공포와 근심으로 채우는 세상이지요.

What this world needs, more than anything else, is a vision of the future – a dream, not a mirage, a prophecy not a fantasy; a message of hope for the future. And that is exactly what you and I as Christians are in a position to offer – here in Melbourne, in our work places and places of study, in our neighbourhoods. Isn’t that what Jesus says in Luke 21 when speaking to his disciples and telling them how it is going to be in the last days? He says (from v. 25), “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 moon and stars. On the earth, nations will be in anguish and perplexity at the roaring and tossing of the sea. Men will faint from terror, apprehensive of what is coming on the world, for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At that time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 Listen to what he says! He doesn’t say, “Bury your head in the sand”, he doesn’t say, “Shake your head in bewilderment”. What does he say? He says,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and up”. Now, as Christians, as followers and servants of Jesus, now is the time for us to stand up when the world is frightened and anxious and perplexed. “Stand up”, says Jesus,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This is the thing that ought to characterize us more than anything else as Christians in this early part of the 21<sup>st</sup> century.

이 세상이 다른 어느 것 보다 더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 망상이 아닌 꿈, 환상이 아닌 예언: 미래를 위한 소망의 메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여기 멜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이것이 누가복음 21 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이 어떨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25 절부터), “일월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너의 머리를 모래에 묻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 가운데 머리를 흔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이냐 했습니까? 그는 “이런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라고 하십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종으로서, 세상이 놀라고 근심하고 당혹해 할 때,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그리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21 세기 초반에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특징짓는 것이어야 합니다.

When everybody else is burying their heads in the sand, afraid of the future, or diving for cover, you and I, as God’s people, need to stand up and lift up our heads. We need, in the words of the apostle Peter in his first letter, to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1 Peter 3: 15). And what is that hope? As Peter makes clear in the first chapter of that letter, it is a living hope into which we have been born by the Spirit of God, the new life which is ours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It is the hope of dwelling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where there is only and always righteousness, and a community or family of people cleansed and filled with life and light and love, planned before time and brought to fulfilment at the end of time by the action of our great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래에 머리를 묻거나 숨기위해 물속에 잠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나는 일어서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에서 말했듯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할”(베드로 3:5)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베드로가 이 서신 첫장에서 분명히 했던 것처럼 그것은 성령에 의해 태어난 살아있는 소망이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것이된, 새 삶을 뜻합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것으로,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씻겨지고 채워진 가족원과 공동체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과 성령의 실행으로 인해 마지막 때에 완수를 이룰, 오직, 언제나 의로움만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소망을 말합니다.

What is it that should make people curious about us and draw them to us so that they are asking questions? It is the hope that is in us. This is what should make us stand out in our society – we should be people who have got a living hope for the future in the midst of a world that is fearful and pessimistic. God gave Daniel a theology of hope for the future so that those Jewish exiles in Babylon, who must have thought that the world had come to an end for them, were able to sing and go on sing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For the same reason, we are enabled to be witnesses and ambassadors for Jesus in our society which is generally apathetic about and even hostile to the things of God.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해 궁금해 하고 그들을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이끌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무섭고 비관적인 세상 가운데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소망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의 교리를 줌으로써, 세상이 그들에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계속 찬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Finally, let us look at this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personally. You see, we are really all like Nebuchadnezzar, aren't we? We have all got our own little empires or kingdoms, haven't we, where we are in control and have some power? Whether they are in the domestic, social, employment, academic or church area of our lives. We all want to build our own little empire and sit enthroned there trying desperately like Nebuchadnezzar to find security. Isn't that the true human condition? Desperately trying to find significance in the empires or kingdoms that we build for ourselves – perhaps even in some office we hold or service or ministry we carry out in the life of the church. But you and I, like Nebuchadnezzar, need to learn that your little empire, my little empire – all our little empires – must in the end give way to Jesus. About 10 years ago I became very sick with an infection in my stomach and it took me 6 months to recover my health and strength and return to full-time ministry. During that time God taught me that my ministry is a gift from him and that he could take it away from me at any time. Indeed our life itself is a gift from God to be lived for his glory and he could take it from us at any time (as I was reminded vividly when I had a serious car accident in the middle of last year). Let us grasp with both hands the incredible privilege that God calls us to, each one, of being co-workers with Christ in the building of his kingdom and so give 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마지막으로 이 꿈과 그 해석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정말 느부갓네살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우리는 통치하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든, 사교에서든, 고용, 학업 또는 교회에서든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정을 찾고자 했던 느부갓네살처럼 필사적으로 우리만의 작은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 세웠던 왕위와 나라에서 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 이는 아마도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무실이나 봉사 혹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느부갓네살처럼 여러분의 작은 통치권, 저의 작은 통치권-우리 모두의 작은 통치권-을 예수님께 결국 내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약 10년 전쯤 제 위속의 감염으로 인해 심하게 아파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한 사역을 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이고, 그는 언제나 (제가 작년 중순쯤에 겪었던 심각한 차 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주듯이) 우리로부터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엄청난 특권을 두 손으로 힘껏 잡시다.

Remember what John the Baptist said when some of the Jews were trying to drive a wedge between him and Jesus and to set off one against the other. He said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John 3:30). That is the message of Nebuchadnezzar's dream for us today – individually and as a congregation. That kingdom in our lives in which self reigns, whatever that kingdom is, must give way to the kingdom of God. "I" must decrease, "He" must increase. Is that happening in your life? Is that happening in our church? Is Jesus' kingdom increasing?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고 노력했을 때 요한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30)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주는 메세지입니다 –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우리 삶속의 왕국은,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내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줄어들어야 하고, "그"는 증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As we go careering into the 21<sup>st</sup> century and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we at least know who holds the future! Jesus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Mark 1: 15). Surrender your life to Jesus and let him use you in the building of his kingdom, the kingdom that will endure forever.

우리가 21 세기를 전진해 갈 때 미래가 쥐고 있는 것을 모를 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누가 그 미래를 쥐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5)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삶을 양도하고 그가 우리를, 영원히 존속될 그의 나라의 건축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합시다.

Amen